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본 원칙 선언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0)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판협회
배틀크릭, 미시간
1872 년

우리 신앙의 개요를 대중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신앙의 신조들, 신경, 규율 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권위를 보이려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 사이에 신앙 조직의 일치성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단지 신자들이 과거와 현재에 만장일치로 가지고 있는 간결한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의 답을 제출하고,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 퍼진 거짓 주장들을 제거하며, 우리 신앙과 의식들에 익숙해질 기회가 없던 자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상들을 바로 잡기 위한 필요를 자주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칠일 재림 교인들로서 우리의 입장이 이해되기를 단순히 바라는 것 뿐이며, 이것을 더욱 갈망하는 이유는 재림교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동정할 수 없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에 그 중 어떤 견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원칙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림교인들과 비교하여, 제칠일 재림교인들은 죽은자의 무의식 상태, 회개치 않은 악인의 최종적 멸망을 믿는 점에서 다른 부류와 다르며, 또 다른 부류의 재림교인들과 다른 점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림교인들과는 주일 중 일곱째 날을 주의 안식일로 성수하는 것과 성경의 예언 적용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위의 소견들을 참고하면서 독자께서는 다음의 진술한 우리 신앙의 현저한 특징들을 요약한 성명서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구합니다.

1.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개성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대표 성령을 통하여 편재하신다. 시 139:7

2.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분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의 본성을 취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의 모본으로 사셨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하늘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다. 이 속죄는 희생제가 드러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다. 레 16 장; 히 8:4,5; 9:6,7 등 참조
3.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인류를 향한 그분의 뜻의 충만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착오없는 표준이다.
4. 침례는 믿음과 회개 다음에 오는 기독교회의 의식이며,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장사지냄과 부활,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어떠한 다른 양식으로도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 즉,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없다. 롬 6:3-5; 골 2:12
5.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해주는 전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인 생애로 이루어진 도덕적인 변화이며, 두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육체적인 변화인데, 만일 죽었다면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며, 만일 살아있으면 순식간에 홀연히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받는 것이다. 요 3:3,5; 눅 20:36
6. 우리는 예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유익하도록 성경에 포함되었으며, 딤후 3:16;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고안되었고, 신 29:2;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가리워져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해당한다. (시편 119:105; 벧후 2:19) 그것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었고, 계 1:1-3;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손에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들을 충분히 깨닫기 위하여 예언을 이해하여야 한다.
7. 과거부터 지정된 세계 역사의 날짜들과, 제국들의 흥망 성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기

까지의 연대적 연속의 사건들은, 예언의 수많은 위대한 고리들에 그 윤곽을 드러내며, 이러한 예언들은 세상 역사의 마치는 장면의 예언들만 제외하고 모두 성취되었다.

8. 전세계 회심과 복천년의 교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지어낸 이야기로써, 사람들을 육적인 안락으로 잠재우도록 고안된 것이며, 주의 큰 날에 밤의 도적처럼 그들을 사로잡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기 이후가 아니며 천년기를 앞서는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법왕권과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이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과 같이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며,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심하여질 것이다.
9. 1844년 재림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 8:14 절의 2300 주야로써, 그 해에 끝났으며,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10. 바울이 히브리서 8장과 그 후에 언급한 새 언약의 성소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써 사역자이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데, 이 성소는 모세 장막의 원형이며, 이것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과거 시대의 유대인 제사장들 사역의 원형이다. 히 8:1-5 등; 이 성소는 2300 주야의 끝에 정결해지며, 그것의 정결은 모형에서처럼 단지 대제사장의 지성소 입장인데, 첫째 칸에서 봉사하였던 수단에 의해 옮겨진 죄들을 지우고 제거하므로 이와 연결된 봉사를 끝마치는 것이다. (히 9:22,23) 이 사업의 원형은 1844년에 시작되었고, 짊막하면서 알 수 없는 기간이며, 이 지구를 위한 자비의 사역이 종료될 때 끝나쳐지게 된다.
11.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들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여 다 같으며; 이것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었고, 돌비에 새겨지고, 언약궤에 보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언약궤” 혹은 “언약” 이라고 불리운다. 민 10:33, 히 9:4, 등; 이 율법은 불변하고 영구하며, 하늘의 참 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보관된 증거판의 사본이며, 역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계 11: 19
12. 이 계명의 넷째 계명은 매 주일 중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일곱째 날에 우리의 노동을 금하고, 이 날을 신성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에 바칠 것을 요구한다. 성경에 나온 주일의 안식일은 오직 이 날이며,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제정된 날이고, (창 2:2,3) 회복된 낙원에서 성수될 것이다. (사 66:22,23) 안식일의 제도가 기초된 사실들은 이것을 일곱째 날만으로 제한하며, 이 사실들은 다른 어떤 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일중 휴일에 적용되는 유대인

안식일과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라는 용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들이며, 비 성서적이고, 의미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13. 불법의 사람인 교황권은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들) 변개코자 했고, (단 7:25) 넷째 계명에 관하여 거의 모든 기독교계를 잘못 인도하였으며, 이것과 관련된 개혁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 볼 수 있다.
14. 자연적 혹은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과 원수가 되므로, 애정의 근본적인 변화로만이 적의가 억제되며, 거룩하지 못한 원칙들을 거룩한 원칙으로 교체하므로 된다. 이 변화에는 회개와 믿음이 뒤따르며,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써, 중생 혹은 거듭남을 이루는 것이다.
15.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그분의 공정하신 요구에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으므로, 첫째, 우리의 과거의 범죄로부터 칭의를 얻기 위하여, 두번째, 앞으로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한다.
16. 하나님의 영은 고전 12 장과, 엡 4 장에 특별히 열거된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로 약속되었으며; 이 은사들은 성령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의 작용의 여러 경로를 지정하므로, 영은 세상 끝 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그것의 임재와 존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며, 그것이 감동한 말씀의 이해로 인도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과 생애에 변화를 이룬다. 그리고 영의 일할 자리와 작용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이 영에게 이 사역과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다.
17. 인류에 대한 한결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접근에 대한 선포를 보내시는데, 이 사역은 계시록 14 장의 삼중 기별로 상징되었으며,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개혁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이 그 사건을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얻게 한다.
18. 성소의 정결 시기와 (10 번 진술 참조) 세번째 기별 선포의 시기는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며, 조사심판의 시기이다.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산 자들과 관련되는데, 지구의 먼지 가운데 자는 무수한 자들 중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와, 지구에 사는 무리들 중에 누가 살아 승천할지를 은혜의 시기 끝에 결정하기 위함이다-이 사항들은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결정지어져야 한다.
19. 우리가 다 가는 무덤은 히브리어로는 “스올”(sheol)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hades)로 표현되

는데, 이 곳에는 아무 사업이나, 계획, 지혜나 지식이 없는 어두움의 장소이다. 전도서 9:10

- 20.우리가 죽음으로 결정되는 상태는 침묵과, 무활동,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이다. 시 146:4; 전 9:5,6; 단 12:2, 등.
- 21.이 무덤의 감옥 집에서 인류는 육체적인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의인은 첫째 부활로, 악인은 천년 후에 두 번째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계 20:4-6
- 22.마지막 나팔 때 살아있는 의인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며,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 23.이 불멸을 입은 자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 저택이 많은 곳으로 (요 14:1-3) 데려가며,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세계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면서 천년기 후에 그들에게 임할 형벌을 할당한다. 계 20:4; 고전 6:2,3; 그동안 지구는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처음에 묘사된 헬라이어 단어 “아부소스”(칠십인역, 창 1:2) (렘 4:23-27) 에서 사탄은 천년동안 갇힌 후 (계 20:1,2) 여기서 결국에는 소멸될 것이다. (계 20:10; 말 4:1) 그가 우주에서 이룬 파멸의 극장은 얼마동안 그의 음울한 감옥 집이 되고, 그 후에 그의 최종적인 처형 장소가 된다.
- 24.천년 후 주님께서 그 백성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강림하신 후에, (계 21:2)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지 않은 지구 표면 위에 올라 서게 되는데, 성도의 장막인 (계 20:9) 도시 주위에 둘러모일 때에,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린다. 그들은 그 때 뿌리와 가지가 (말 4:1) 사라져서 본래 없던 것처럼 된다. (오바댜 1:15,16)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살후 1:9) 이 영원한 파멸에서 악인들은 그들을 위협했던 영원한 형벌을 (마 25:46) 만난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의 멸망이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된” 불은 그 강렬한 화력으로 원소들까지도 녹일 것이며, 죄의 저주의 가장 큰 얼룩으로부터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다.
- 25.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옛 것의 재로부터 솟아나며, 그것의 중심도시와 수도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있어,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으로, 의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된다. 벧후 3:13; 시편 37:11,29, 마 5:5